



나노기반 16GB LPDDR5 모바일 D램

삼성, 세계 최대 반도체공장 '평택 2라인' 본격 가동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 라인에서는 업계 최초로 EUV(Extreme Ultraviolet,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첨단 3세대 10나노급(1z) LPDDR5 모바일 D램이 생산된다.

삼성전자의 평택 2라인은 연면적이 12만8천900㎡(축구장 16개 크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이다. 평택 2라인은 이번 D램 양산을 시작으로 차세대 V낸드,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생산라인으로 만들어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초격차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평택 2라인에 2020년 5월 EUV 기반 최첨단 제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착공했으며, 6월에는 첨단 V낸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낸드플래시 생산라인도 착공했다. 두 라인 모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평택 2라인 공장

이번 평택 2라인은 2018년 8월에 발표한 180조원 투자, 4만명 고용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된 것으로, 삼성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규투자과 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 1라인에 이어 이번 평택 2라인에도 총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집행된다. 직접 고용하는 인력은 약 4천명으로 예상하고 협력사 인력과 건설인력을 포함하면 약 3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평택캠퍼스는 2015년부터 조성된 289만㎡의 부지를 가진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전초기지다. 평택 1라인은 2017년 6월 양산을 시작했으며, 평택 2라인은 2018년 1월 착공돼 이번에 처음으로 D램 제품을 출하했다.

평택 2라인에서 이번에 출하된 16GB LPDDR5 모바일 D램은 메모리 양산제품으로는 처음 EUV 공정이 적용됐고, 역대 최대 용량과 최고 속도를 동시에 구현한 업계 최초의 3세대 10나노(1z) LPDDR5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에 차세대 1z 16GB 모바일 D램을 업계 유일하게 제공함으로써 올해 출시되는 AI 기능이 더욱 강화된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또 높은 신뢰성도 확보해 전장용 제품까지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 개발실 이정배 부사장은 "이번 1z 나노 16Gb LPDDR5는 역대 최고 개발 난도를 극복하고 미세공정 한계 돌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제품"이라며 "프리미엄 D램 라인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고객 요구에 더욱더 빠르게 대응하고 메모리 시장 확대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SAMSUNG

Portable SSD T7 Touch



놀라운 속도의 외장 드라이브

포터블 SSD T7 Touch

이제 놀라운 속도는 기본, 보안까지 확실하게 지키세요.

T7 Touch는 대용량 데이터도 순식간에 처리해주며, 당신의 지문에만 반응하는 강력한 보안을 갖췄습니다. 모션 LED로 실시간 드라이브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